

# 소설 『토지』 배경지 평사리의 문화산업화와 콘텐츠 변화 방향 연구\*

최유희\*\*

1. 『토지』의 콘텐츠 분화
2. 평사리 공간 재편의 동력
3. 가상공간의 현실공간 재편
  - 3-1. 문화공간의 축도로서의 평사리
  - 3-2. 생명 공간으로 재맥락화
4. 현실공간과 웹공간 기획
5. 콘텐츠 플랫폼 평사리

## 국문초록

이 논문은 소설 『토지』의 주요 무대이자 작중인물들의 삶에 새겨진 원체험 공간인 평사리의 의미를 진단하고 <토지> 콘텐츠 플랫폼으로서의 평사리의 방향성을 제안한다.

소설 속 가상공간인 평사리는 원작의 배경지에서 출발하여 하동군의 대표 문화 공간으로 현재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런데 이 공간의 방문자들이 자기만의 장소성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문화체험형 콘텐츠로 재탄생할 필요가 있다. 원작에서 평사리는 이상적 공동체이자, 수난과 개혁이라는 한국 근대사의 축도로 존재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의미를 살려

---

\* 이 논문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후원하고 대중서사학회와 토지학회, 여성문학학회, 숙대 아시아 여성연구원, 중국 길림대학교 외국어학원이 공동 주최한 국제학술회(중국 길림대학교, 2018년 7월 17일)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

\*\* 중앙대학교 다빈치교양대학 조교수

유교문화, 여성의 노동문화, 무속문화를 보여주는 문화체험공간을 마련하여 방문자들의 체험을 이끌어내야 한다.

아울러, 평사리 재편의 동력이 된 변용작품들과 연계하여 앱을 개발하고, 증강현실을 이용한 교육과 체험 공간을 웹에 마련한다. 디지털과 현실의 이러한 교호작용은 원작이나 변용작품들의 의미를 사유하게 하는 동시에 방문자들이 저만의 장소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한다. 또한 이를 통해 평사리는 한국문화와 삶의 의미를 사유하는 문화체험 콘텐츠 플랫폼으로의 진화가 가능하다.

이 글은 ‘의미 있는 장소들의 지리’를 위한 평사리의 공간 기획 방향성을 제언한다는 점에 그 의미가 있다. 또한 문학 작품 원작의 상상 공간이 현실의 공간을 어떻게 재편해 왔는지를 보여줌과 동시에 문학작품의 미디어 콘텐츠화와 문화예술산업 지형 구축에도 시사점이 있다.

(주제어: 박경리, 『토지』, 평사리, 생명공간, 장소성, 문화체험콘텐츠, 문화예술산업)

## 1. 『토지』의 콘텐츠 분화

1969년 소설 『토지』가 ‘현대문학’지에 연재된 이후 50년 동안 소설 『토지』의 콘텐츠 분화는 지속되고 있다. 『토지』는 현재까지 텔레비전 드라마로 3회, 영화 1회, 서사음악극 1회, 만화 1회, 라디오극으로 1회 변용되었다. 매체 변용은 아니지만, 청소년 『토지』도 콘텐츠 분화의 예에 해당한다. 총 8회의 콘텐츠 분화와 긴 매체 변용 기간으로 판단하면, 『토지』는 콘텐츠 분화를 대표하는 한국문학작품이다.

1970년대 이후 지금까지의 『토지』의 콘텐츠 변용의 역사는 문화예술 산업과 연계되어 한국의 현대 문화사를 읽어내는 매개이기도 하다. 원

작의 변용 과정에서 각색자, 제작자, 제작 환경 등의 직접적인 주체들뿐만 아니라 수용자, 시장, 문화 환경의 요구가 결합하여 시대와 상호작용하기 때문이다. 특히, 수용자의 입장에서는 거의 50년에 가까운 세월을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등으로 다양하게 매체로 변용된 <토지>와 만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74년 영화 <토지>의 최치수 역을 맡은 이순재는 2004년 SBS 드라마에서는 김훈장의 역할로 등장한다. 배우들도, 반세기에 걸쳐 『토지』 변용의 역사와 함께 성장해왔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대중들은 원작과 변용작품을 시대를 달리하여 접하면서 원작 소설과는 또 다른 체험을 하게 된다. 원작의 연재 시기와 변용된 콘텐츠의 발표 시기는 다음 표로 살펴본다.

〈『토지』 연재 및 콘텐츠 분화 시기 비교표〉

	소설 연재 시기	발표지	변용작품 발표 및 방송 시기	
1960~70년대	1부: 1969년 9월-1972년 9월 〈현대문학〉		라디오 방송극 MBC 소설극장	1부: 1974년 10월 1일-12월 (06시 45분-07시)
	2부: 1972년 10월-1975년 10월 〈문학사상〉		영화 	1부: 1974년 11월 23일, 김수용 감독
	3부: 1977년 1월-1979년 12월(주부생활), 〈독서생활〉, 〈한국문학〉		텔레비전 드라마 KBS 1차 	1부: 1979년 12월 12일-1980년 4월 14일 2부: 1980년 5월 12일-1980년 8월 4일 3부: 1980년 8월 18일-1980년 12월 29일
1980년대	4부: 1981년 9월-1988년 5월 〈마당〉, 〈정경문화〉, 〈월간 경향〉		텔레비전 드라마 KBS 2차 	1부: 1987년 10월 24일-1988년 4월 9일 2부: 1988년 4월 16일-1988년 8월 28일 3부: 1988년 10월 16일-1989년 3월 19일 4부: 1989년 4월 2일-1989년 8월 6일

1990 년대	5부: 1992년 9월-1994년 8월 (문화일보)		서사음악극 	1부(1-3막), 2부(4막): 1995년 9월 5일 세종문화회관 이승하 대본·김영동 작 곡, 90분.
2000 년대			SBS 드라마 	1부: 2004년 11월 27일-2005년 1월 30 일(20화) 2부: 2005년 2월 5일-2005년 3월 12일 (11화) 3부: 2005년 3월 13일-2005년 4월 17일 (11화) 4부: 2005년 4월 23일-2005년 5월 1일(4 화) 5부: 2005년 5월 7일-2005년 5월 22일(6 화)
			만화 	1부: 2007년 5월 1일 오세영 그림(1-7 권) 2-5부: 2015년 7월 1일 박명운 그림 (8-17권)
			청소년 토지 	1부-5부 전체 12권 2008년, 이룸 출판사

원작의 첫 출간 시기인 1969년 이후, 만화 <토지> 완간년인 2015년에 이르기까지 소설, 라디오 방송극, 영화, 텔레비전 드라마, 서사음악극, 만화, 청소년 『토지』 등의 형태로 <토지>들이 재탄생한다. 그리고 때로는 원작 3부 연재시기에 드라마 1부가 방송되는 식으로 텍스트와 콘텐츠 변용작품이 수용자들에게 동시에 수용되고 있다. 아울러 원작은 드라마 혹은 영화, 만화 등의 매체 변용에 머물지 않고 지역 문화예술 산업과 연계되어 또 다른 가치를 창출한다. 원작 『토지』에서 매체 변용 <토지>로, 매체 변용 <토지>에서 지역문화콘텐츠 <토지>로 변화하면서 50년의 세월 동안 독자, 시청자, 체험자들과 호흡하며 『토지』는 ‘문화예술 산업으로서의 가치’<sup>1)</sup>를 확장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소설 속 상상 공간이 변용 작품을 통해 어떻게 현실의

공간을 재편하는지를 분석하여 수용자들이 그 체험을 어떻게 재맥락화할 수 있을지를 평사리 공간 구성을 통해서 제안한다.

## 2. 평사리 공간 재편의 동력

평사리는 소설 『토지』의 주요 배경지이다. 물론 평사리 이외에도 이 소설은 한국, 중국, 일본 등의 동아시아 세 나라의 하동, 진주, 통영, 서울, 부산, 용정, 하얼빈, 장춘, 동경 등의 여러 도시를 서사의 무대로 삼고 있다. 하지만 타작마당을 배경으로 한가위 풍경을 묘사하는 서장(序章)도 5부에서 양현이 서희에게 독립을 알리고, 장연학이 평사리 독길에서 독립 만세를 외치는 마지막 서사의 배경공간도 바로 평사리이다. 즉, 평사리는 『토지』의 시작과 끝을 장식하며 외부세계와 소통하는 열린 공간<sup>2)</sup>이다.

아울러, 『토지』의 인물들에게 평사리는 모든 공간 경험 이면에 숨은 원체험 공간이다. 평사리로의 귀환을 꿈꾸며 용정의 삶을 이어가는 서희, 어머니 함안댁의 산소를 해마다 찾아오는 한복이, 죽음을 앞두고 평사리로 돌아오는 용이 등의 인물에게 평사리는 고향 이상의 의미이다. 평사리에서 태어나지 않은 조준구도 평사리 사람들의 그물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듯이 이들에게 평사리는 하나의 원체험 공간이다. 요컨대, 소

1) “문화예술산업은 문화산업의 예술적 성격을 강조한 용어이다.”, 박상민, 『『토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문화예술산업』, 『현대문학의 연구』 21호, 한국문학연구학회, 2003, 395쪽.

2) 조윤아는 『토지』 인물들의 구체적 공간 이동 경로를 분석하여 평사리를 ‘닫힌 공간이 아니라 외부와 소통하는 열린 공간’이라고 평가한다. 조윤아, 『박경리 『토지』의 공간 연구』, 『현대문학의 연구』 21호, 한국문학연구학회, 2003, 301쪽.

설의 물리적 배경 무대인 평사리는 서사의 위상학적 공간의 출발지이자 귀착지로서, 그리고 인물들의 존재와 욕망의 지도에 숨은 척도 역할을 하는 ‘문화적 장소’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원작의 배경지이자 변용작의 촬영지인 평사리를 경상남도 하동군에서 콘텐츠화하려는 노력은 지역문화 활성화 차원에서는 당연한 일이다. 장소의 상징적 이미지는 “예술, 문화 교육, 가정, 친구, 미디어 등의 일상 생활을 통한 이미지 형성”<sup>3)</sup> 단계에서 출발한다. 그런데 원작 『토지』의 이미지 형성 단계에서는 원작 소설의 이미지와 아울러 다양한 매체로 변용된 이미지들이 복합적으로 작동한다. 그러므로 평사리 콘텐츠화의 노력을 촉발한 것은 평사리에서 텔레비전 드라마가 촬영된 후에 대중의 장소 이미지가 복합적으로 형성된 때문이다.

원작을 처음 드라마화한 것은 1979년 KBS에서이다. 당시 작가는 ‘의상 등의 고증, 역사관 부각, 야외촬영’, 이 세 가지를 방송사 측에 요구한다.<sup>4)</sup> 작가의 야외 촬영 요구는 1987년 KBS 2차 드라마 촬영에서 1부를 100% 야외 촬영으로 하면서 그 관심이 증대되고, 이때부터 경남 하동을 배경으로 극 중의 ‘평사리’를 재현<sup>5)</sup>한다. 그리고 2004년 SBS에서 드라마를 제작할 때는 본격적으로 평사리에 세트장을 건설한 후 드라마를 제작한다. 이때 소설의 배경지로서 평사리가 1987년과 2004년 드라마의 실제 촬영 장소로 각인되면서 평사리는 지역 문화예술산업의 주요 장소로 떠오른다. 서희가 머물던 최참판댁이 아니라 최수지와 김현주가 머

3) 이미지 형성 단계, 수정 단계, 결정 단계, 여행 단계, 참여 단계, 여행에서 귀환 단계, 새로운 이미지 형성 단계로 이정훈은 구분한다. 이정훈, 『장소의 상징적 이미지와 문화적 활동의 영역적 체계에 입각한 문화관광개발의 개념적 모형 정립』, 『한국지역지리학회』 11/5, 2005, 408쪽.

4) <KBS 박경리 소설 『토지』 TV극화>, 『동아일보』, 1979.8.24., 5면.

5) <대하드라마 토지 막내러>, 『동아일보』, 1989.8.7., 16면.

물던 최참판댁으로 대중들의 관심이 이어진 결과가 지금의 평사리이다. 즉, 원작 배경지로뿐만 두 번의 드라마 로케이션이 계기가 되어 평사리는 하동군의 대표적 문화공간으로 변모하며, 방문자들에게는 드라마 촬영 장소라는 이미지를 구축하게 된다.

현재 평사리 공간은 최참판댁 기와집 건물과 평사리 민가로 나뉘어 있는데, 최참판댁의 건립은 지역 문화인들과 하동군의 노력이 있기에 가능했다. 1987년 드라마 <토지> 방송 이후 평사리에 독자나 시청자들의 방문이 이어지자 하동군에서 2001년 2월에 2900여 평의 부지에 18억여 원을 들여 최참판댁을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 상평마을에 건립한다.<sup>6)</sup> 계획에 착수한 시점은 1997년으로, 완공까지 최참판댁 건립에 5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 2001년 준공을 완료한 최참판댁은 2004년 SBS 드라마 토지의 세트장으로 평사리 마을이 재편되면서 본격적으로 활용된다.<sup>7)</sup> SBS는 평사리 마을에 흩어져 있던 민가 등을 추가로 건설하여 세트장을 완성하는데, 고소산성이 병풍이 되고 악양 들판과 섬진강을 굽어보는 자연지세와 어우러진 공간을 형성해낸다. 인위적인 세트장의 형태가 아니라 평사리 자연의 품 안에 안겨 있는 형태이다. 삼십여 년 세월 동안 소설이 영화, 드라마 등의 문화콘텐츠로 변용되면서 대중들의 관심과 애정이 증폭하는 것을 목도한 지역민들의 노력과 결합하여 평사리 공간은 현재의 상징공간이자 현실공간으로 변모한다.

6) 1997년 6월 최참판댁 건립 계획을 수립, 1998년 2월 건립 대상지를 선정, 1998년 6월 부지조성 사업을 설계, 1998년 11월-1999년 4월 부지조성을 완료, 1999년 12월 착공을 하여 2001년 1월 4일 문을 열었다.

7) <지역 名士와 함께 하는 문화 여행지 경남 하동-남해>, 『파이낸셜뉴스』, 2017.12.14., 30면.

### 3. 가상공간의 현실공간 재편

#### 3-1. 문화공간의 축도로서의 평사리

현재는 하동군의 대표 문화공간으로 평사리가 지역 문화산업의 거점으로 활용되고 있다. 하동군은 최참판댁<sup>8)</sup>을 ‘하동 8경’ 중의 하나로 내세우며 관광객, 관람객들을 유치하고 있다. 화개장터 십리벚꽃, 금오산 일출과 다도해, 쌍계사의 가을, 평사리 최참판댁, 형제봉 철쭉, 청학동 삼성궁, 지리산 불일폭포, 하동포구 백사청송, 이 여덟 곳을 하동의 경치로 내세우는데, 이 가운데 청학동 ‘삼성궁’과 평사리 ‘최참판댁’ 이외의 곳은 모두 자연의 아름다움을 대표하는 곳이다. 하동군은 섬진강변에 평사리 공원을 조성하는 한편, ‘하동 박경리 토지길’을 조성하여 도보여행 코스로 내세우고 있다. 뿐만 아니라 평사리에서는 매년 토지문학제<sup>9)</sup> 행사를 개최하고 최참판댁 한옥체험과 숙박체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방문객들의 체험을 유도하고 있다. 문화프로그램으로는 최참판댁을 문화마당으로도 활용하여 2010년부터 지금까지 <토지> 마당극 ‘최참판댁 경사났네’를 공연해왔으며, 현재는 상설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다. 단지 평사리와 최참판댁 공간을 둘러보는 것이 아니라 소설 『토지』 한 대목으로 관객들을 끌어들이 소설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끌어내려는 기획이다. 이 공연은 관객을 극중 인물로 즉석 출연하게 하는 등으로 관객과 소통하려는 의도를 보여준다. 길놀이 후에 용이네 집 앞, 최참판댁 앞마당 등으로 이동하며 공연한다. 관객들도 이들의 공연을 따라다니며

8) 평사리는 현재 한 해 40~50만 명이 방문하는 공간으로 성장했다. <하동 여덟 가든 대하소설이 펼쳐진다>, 『조선일보』, 2016.7.4., 14면.

9) 2001년 이후 매해 평사리 최참판댁에서 토지문학제 행사를 하고 있다.



관람하고 극에 참여하게 된다. 그런데 이 마당극은 원작의 변용작품이라기 보다는 공간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흥미를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공간 체험을 위한 문화 상품으로서 기능하는 측면이 있다. 또한 평사리에 건립된 박경리 문학관<sup>10)</sup>도 지역문화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토지』 이외의 다른 영화나 드라마 배경지로도 평사리가 인기를 끌고 있다.<sup>11)12)</sup> 『토지』 콘텐츠 이외의 드라마 영화의 배경 공간으로 제공되면서 수용자들의 체험의 지도가 확장되고 있는 셈이다. ‘해를 품은 달’ 등 28편 이상의 드라마와 관상(2013)을 포함한 10편의 영화가 이곳에서 촬영되면서<sup>13)</sup> 지역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문화 콘텐츠 분화 양상을 종합하면 ‘평사리’는 이제 하나의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동군은 소설 『토지』의 하동 지역 문화예술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기려 2017년 하동군의 한다사(韓多沙)<sup>14)</sup> 대상을 박경리 선생에게 수여한다. 하동군은 대상 수상의 이유를 ‘드라마 촬영지로서 평사리와 최참판댁이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sup>15)</sup>라고 말하

10) 2016년 5월 4일 ‘박경리 문학관’이 개관했다.

11) <하동 최참판댁, 역사 드라마 단골 촬영지로 ‘인기몰이’>, 『연합뉴스』, 2017.3.8.,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9092083>, 2020.4.3. 검색.

12) <촬영지 여행-그곳에 가면 ‘홍길동’을 만날 수 있다>, 『경기도민일보』, 2017.2.10., <http://www.kgdm.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5282#08p2>, 2020. 4.10. 검색.

13) 드라마 ‘인수대비’(JTBC, 2011, 2.9%), ‘해를 품은 달’(MBC, 2012), ‘구가의 서’(MBC, 2013), ‘육룡이 나르샤’(SBS, 2015), ‘구르미 그린 달빛’(KBS2, 2016), ‘푸른 바다의 전설’(SBS 2016), ‘역적 홍길동’(2016), ‘엽기적인 그녀’(SBS, 2017), ‘나의 나라’(JTBC, 2019)를 포함한다.

14) 하동의 옛 이름이다.

15) “이 소설은 프랑스어·영어·독일어·중국어·일본어·러시아어 등으로도 출판돼, 하동군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데 기여했다. 또 소설 ‘토지’속의 최참판댁과 평사리 마을로 건설된 최참판댁 일원에서 2004년 SBS 대하드라마 ‘토지’를 시작으로 드라마 28건과 ‘관상’ 등 영화 10건이 촬영되는 등 촬영명소로 부각되면서 관광객 유치와 지

고 있다. 여기서 한 작가의 문예물이 다양한 매체의 작품으로 변용된 후, 실제 공간의 변화를 추동하여 지역문화예술산업을 견인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변용작품의 부가가치 측면에서도 『토지』의 문화예술산업적 가치를 논할 수 있다. 작가 개인의 인세를 제외하고 변용 작품을 통해서 얻은 작가의 원작료는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할 때 다음과 같다. 1974년 영화 〈토지〉 100만원(50만원은 문예영화제작 격려금으로 제작사에 기증)<sup>16)</sup>, 1979년 드라마 원작료 500만원<sup>17)</sup>, 1987년 드라마 원작료 1억 지급<sup>18)</sup>, 2004년 SBS 드라마 원작료 2억<sup>19)</sup>이다. 이를 근거로 하면 변용 작품으로 얻은 작가의 개인적 가치는 총금액 3억 600만 원이다. 이후 만화 〈토지〉 등의 원작료를 더한다고 해도 지역 활성화에 따른 부가 경제 가치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시간의 흐름을 상쇄하여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지만, 평사리 방문객이 50-60만 명에 이르니까 관람객 수익만 하더라도 한 해에 어림잡아 7억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 작가의 상상의 결과가 원작이나 변용작의 재판매를 통한 가치 창출 이외에도 현실 공간을 재편함으로써 새로운 문화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곳이 평사리임이 확인된다. 이렇듯, 『토지』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부가가치는 지속적으로 창출되고 있으며, 그 대표 브랜드가 바로 『토지』의 ‘평사리’이다.

---

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故박경리 선생 ‘한다사 대상’ 첫 수상 영예〉, 『일요서울』, 2017.4.15.,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1510>, 2020.4.10. 검색.

16) 〈다시 봄비는 문예영화〉, 『경향신문』, 1975.4.14, 5면.

17) 〈KBS 박경리 소설 토지 TV 극화〉, 『동아일보』, 1979.8.24, 5면.

18) 〈대하드라마 토지 막 내려〉, 『동아일보』, 1989.8.7, 16면.

19) 〈토지 작가 박경리의 소설보다 더 소설 같은 삶〉, 『여성동아』 493호, 2005, <http://woman.donga.com/3/all/12/132543/1>, 2020.4.10. 검색.

### 3-2. 생명 공간으로 재맥락화

앞서 살펴보았듯이, 상상공간이 현실공간을 재편하여 사람들에게 상상공간과 현실공간의 체험을 연결해 주고 공간의 의미를 확장해 주는 곳이 평사리이다. 그런데 브랜드화한 ‘평사리’의 공간을 방문한 사람들은 무엇을 만날 수 있을까를 평사리 방문객이 되어 재구성해 보자. 위상학적 공간, 원작 배경지, 촬영 장소로서의 평사리가 아니라 ‘내가 체험한 평사리’의 관점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평사리 공용 주차장에서 내려서 매표소를 지나면, ‘서희와 길상이’, ‘평사리 상회’, ‘토지 농원’, ‘최참판댁 순두부’, ‘요거프레소’ 등의 가게가 즐비한 하나의 길을 만나게 된다. 그리고 그 길 끝 왼쪽에 박경리 문학관이, 오른쪽에 최참판댁의 기와집들이 들어서 있다. 매표소에서 최참판댁에 이르는 400여 미터 거리 양쪽으로 늘어선 이 가게들은 원래 평사리를 지키던 민가였는지, 최참판댁이 건립된 이후에 들어선 집인지 구별이 되지 않을 정도의 여느 관광지에서 볼 법한 풍경이 나타난다. 방문객의 시선은 이 가게들로 차단되어 있다. 올라갈 때는 왼쪽의 고소성이나 오른쪽의 최참판댁의 기와집 등을, 내려올 때는 오른쪽의 섬진강이나 왼쪽의 평사리 들판을 바라볼 여유를 빼앗는 모양새다.

더구나 하동군은 악양면을 중심 콘텐츠로 내세워 2009년 국제슬로시티(Cittaslow) 회원 도시로도 가입한다. 국제슬로시티의 주요 목표 가운데 하나는 ‘개별 도시들의 문화적 다양성과 독특함 촉진’에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 여느 관광지에서도 만날 수 있는 똑같은 관광지 거리의 모습은 당혹감을 자아내게 한다. 차로 이동하면 몇 분 내로 도착하는 ‘화개장터’의 모습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방문객 입장에서는 걷다가 찻집 등의 쉼터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느 관광지에서나 볼 수 있는 특색 없

는 광경은 단순 ‘관광용’ 공간으로 전락할 우려를 느끼게 된다. 이승윤은 소설 『토지』를 원소스로 하여 원작과 작가를 중심으로 하는 문학관들이 그 공간만이 제공하는 기념물과 의미부여가 없어서 아쉽다고 진단한 바 있다.<sup>20)</sup> 그리고 일찍이 작가도 이러한 상황을 예견한 바 있다. 2001년 최참판택이 건립되었을 무렵 작가가 쓴 나남출판사 판본(板本) 『토지』 서문의 한 구절을 보자.

“다만 죄스러움이 가끔 마른침 삼키듯 마음 바닥에 떨어지곤 한다. 필시 관광용이 될 최참판택 때문인데 또 하나, 지리산에 누를 끼친 것이나 아닐까. 지리산의 수난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먹고살 만한 사람들에 의해 산은 신음하고 상처투성이다. 어디 지리산뿐일까마는 산짐승들이 숨어서 쉬어볼 만한 곳도 마땅치 않고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운 식물, 떠나버린 생명들, 바위를 타고 흐르던 생명수는 썩어가고 있다 한다. 도시 인간들이 이룩한 것이 무엇일까? 백팔번뇌, 끝이 없구나. 세사(世事) 한 귀퉁이에 비루한 마음 걸어놓고 훨훨 꺾테기 벗어던지며 떠나지 못하는 것이 한탄스럽다. 소멸의 시기는 눈앞으로 다가오는데 삶의 의미는 멀고도 멀어 너무나 아득하다.”<sup>21)</sup>

평사리 공간의 관광용으로의 변화에 관한 작가의 우려가 기우는 아니다. 최참판택과 드라마 세트장을 재현하고도 이들 공간을 가로막는 공간 구성이 방문객들의 시선과 체험의 리듬을 방해하고 있다. 그러므로 슬로시티의 특성에 맞게 방문객의 체험 동선을 계획하여 최참판택에 이르는 길과 가게들을 재정비할 콘텐츠를 마련해야 한다. 먼저, 공간 재편에 앞서 고려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평사리의 의미’를 살펴본 후에 공간 체험자들에게 평사리가 어떻게 새겨져야 하는지 생각해본다.

20) 이승윤, 『문학관/문학공간의 활성화 방안과 콘텐츠 기획의 사례 연구 - 박경리의 『토지』를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24/4, 2018, 25쪽.

21) 박경리, 『토지』 1권, 마로니에북스, 2012, 18-19쪽.

노년의 서희에게 평사리의 최참판댁이 어떤 의미인지, 가문의 이름과 자산을 지켜내는 것이 삶의 목표였던 서희가 평사리를 되찾고 난 후의 소회를 보자.

수많은 역사, 사연이 파리를 틀듯 둘러싸여 있는 평사리의 최참판댁, 고래등 같은 기와집, 꿈에서도 잊지 못했던 탈환의 최후목표였던 평사리의 집을 거금 오천 원을 주고 조준구로부터 되찾았을 때, 그것으로 서희의 꿈은 이루어졌고 잃었던 모든 것을 완벽하게 회수했던 것이다. 그때 서희의 감정은 기쁨보다 슬픔이었고 허망했다. 그리고 뭘지 모르지만 두려움, 낯설음, 과거에 대한 두려움이었고 낯설음이었다. 서희는 회수한 평사리의 집에 꽤 오랫동안 접근하지 못했다. 그렇다. 서희는 과거를 두려워한 것이다. 그가 기억하고 있는 일들은 모두 음산한 비극뿐이었기 때문이다. 어쩌면 평사리의 집은 의식 속에 방치된 채, 서희는 현실에 쫓겼는지 모른다.<sup>22)</sup>

서희에게 평사리는 되찾아야 하는 이상향이자 비극적 과거를 상징하는 삶과 역사의 현장이다. 또한, 용이의 아들 홍이도 사람들의 역사는 평사리의 역사이며, ‘평사리의 역사는 곧 최참판댁의 역사’라고 말한다. 평사리의 원체험을 지니고 있지 않은 세대들에게도 최참판댁과 평사리는 이들의 삶과 분리할 수 없는 장소인 것이다.

“여기 앉아 있는 사내들, 모두가 제각기 신상얘기를 늘어놓게 된다면 아마도 반세기 동안의 평사리 역사일 것이며 바로 최참판댁의 역사를 말한다 할 수 있을 게야. 김서방은 빼고, 우리 세 사람 모두, 그렇지, 우리는 아직도 그 열등감을 극복하지 못했다. 우리들 마음은 항상 자연스럽지가 않았어.”<sup>23)</sup>

22) 박경리, 『토지』 16권, 마로니에북스, 2012, 364쪽.

23) 박경리, 『토지』 17권, 마로니에북스, 2012, 299쪽.

여기서 세 사람은 흥이, 영광, 영호인데, 이들 젊은 세대의 삶에서도 평사리의 원체험은 역사로 각인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서희에게는 개인적 비극의 현장으로서 ‘최참판댁’이, 평사리 마을 사람들에게는 굳건하게 삶을 버텨온 자리로서 ‘최참판댁’과 ‘평사리’가 자리한다. 이는 작가가 지리산을 역사의 현장으로, 평사리를 ‘풍요를 약속한 이상향’으로 정의한 것과는 일맥상통한다.

악양평야는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외부에서는 넘볼 수 없는 호수의 수면같이 아름답고 광활하며 비옥한 땅이다. 그 땅 서편인가? 골격이 굽은 지리산 한 자락이 들어와 있었다. 지리산이 한과 눈물과 핏빛 수난의 역사적 현장이라면 악양은 풍요를 약속한 이상향이다. 두 곳이 맞물린 형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고난의 역정을 밟고 가는 수없는 무리. 이것이 우리 삶의 모습이라면 이상향을 꿈꾸고 지향하며 가는 것 또한 우리네 삶의 갈망이다. 그리고 진실이다.<sup>24)</sup>

‘고난의 역정을 이겨내고 이상향을 꿈꾸는 인간의 진실을 드러내는 자리’라는 작가의 평사리 진단은 비단 소설 속 주인공들에게만 부여되는 의미가 아니다. 평사리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사유의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다. 작가의 ‘상상에서 발원한 평사리’<sup>25)</sup>는 소설에 수놓은 수많은 우리네 삶의 갈망과 어우러져 있고, 책의 독자들, 드라마와 만화 등의 작품을 접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삶의 갈망과 진실의 의미를 되새김하고 있기에 말이다.

24) 박경리, 『토지』 1권, 마로니에북스, 2012, 18쪽.

25) 이상진은 한국의 전통적인 촌락공간의 구성의 관점에서, 평사리 공간을 최참판가의 주거공간(여성중심적, 폐쇄적, 남녀의 교류를 허락하지 않음)과 사당의 제의공간(가짜주인의 은신 공간), 생업과 놀이공간 등으로 분류한다. 이상진, 『『토지』의 평사리 지역 형상화와 서사적 의미』, 『배달말』 37호, 배달말학회, 2005, 267쪽.

평사리는 이렇듯, 작품의 배경지로서, 매체 변용 작품들의 배경지로서 그리고 작가가 말한 이상적 공동체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비극의 역사이든, 개척의 역사이든, 역사 자체가 우리의 삶이고 곧 공동체의 기록이다. 그러므로 ‘평사리’는 수난과 개척이라는 한국 근대사의 축도로 존재한다.

하동균이 소설 속 공간을 평사리에 구현하고 그 공간에서 또 다른 ‘〈토지〉’들을 드라마 제작자들이 만들어내어 새로운 의미를 구성하듯, 평사리 방문객들에게도 사유의 공간을 제공하여 저만의 〈토지〉들을 만들어내는 장소 체험이 필요하다. 공동체의 지향을 드러내고 ‘고난의 역정을 밟고 가는 수없는 무리’가 삶을 되새김질하는 체험 공간으로 평사리를 다시 맥락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에드워드 켈프는 인간과 장소에 관해 이렇게 말한다.

의미 있는 장소와 관련 맺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뿌리 깊은 욕구이다. 만일 우리가 이런 욕구를 무시하면서 무장소성의 힘에 도전하지 않는다면 미래는 장소가 전혀 중요하지 않은 환경이 되고 말 것이다. 이와 달리, 우리가 장소 욕구에 반응하기를 원하고 무장소를 초월하고자 한다면, 인간 경험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강화하는, 인간을 위한 장소가 환경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 두 가지 가능성 중에서 어느 것이 더 개연성이 있을지, 아니면 아예 다른 가능성이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적어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사는 세계가 무장소의 지리가 될 것인지, 의미 있는 장소들의 지리가 될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도 온전히 우리의 책임이라는 사실이다.<sup>26)</sup>

‘의미 있는 장소’와 관련 맺으려는 욕구는 평사리로 발길을 모은 원동력

26) 에드워드 켈프, 『장소와 장소상실』, 김덕현·김현주·심승희 옮김, 논형, 2017, 298쪽.

이다. 그리고 현재의 평사리는 ‘의미 있는 장소들의 지리로 재편하여 방문객들이 나만의 장소 체험을 유인해야 하는 단계이다. 작가가 그린 소설 속 평사리, 드라마 세트장으로 활용된 평사리, 평사리를 방문한 후에 사람들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평사리 중 어떤 것이든 평사리는 상상과 재구성을 통해 현실 공간을 바꾸고 다시 생각을 바꾸고 새로운 이미지와 의미를 만들어낸다. 그러므로 평사리 방문자에게 ‘의미 있는 장소들의 지리를 체험할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하고 콘텐츠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 4. 현실공간과 웹공간 기획

평사리는 한 편의 소설이 영화, 드라마 등의 매체로 변용되고 그 과정에서 형성된 가상공간이 현실의 공간을 재구성하여 방문자들의 장소 체험을 만들어내는 공간이다. 그리고 지금은 내적 콘텐츠를 강화하여 소설과 드라마의 단순 배경지로서의 하동군 평사리의 외양 변화가 아니라 조선 후기와 일제 강점기 우리 삶의 문화 공간으로서의 평사리를 기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콘텐츠를 통해 방문자가 공간으로서의 ‘평사리 최참판댁이나 농가가 아니라 원작 ‘토지’의 장소의 의미를 재구성하고 방문자들만의 장소성을 체험하는 공간으로 콘텐츠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평사리는 최참판의 집과 농가로 구성되어 있으나 최참판댁만 실제 활용가능할 정도의 규모이다. 그래서 최참판 집을 중심으로 하여서는 사람들의 발길이 자주 머문다. 최참판 집 이외의 공간은 누구 집인지 표식만 있는 정도이다. 그러므로 평사리 마을 전체를 사유와 사람이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재구성한다. 예를 들어, 평사리 민가를 몇몇 구획으로 나눌 필요가 있다. 김훈장 집을 중심으로 하는 서당문화, 두만네,



함안대, 임이네 집을 중심으로 하는 여성의 노동문화, 월선의 집을 중심으로 하는 무속문화 공간으로 재구성하기를 제안한다. 현재의 평사리 민가 공간은 단지 세트장의 안내 역할만 담당한다. 이 집이 누구의 집인지만 알려주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방문객에게는 원작이나 드라마를 접한 경험에 따라 장소적 이미지가 달라지므로 체험 콘텐츠를 제공하여 저마다의 장소성을 확보하게 한다.

첫 번째는 조선시대 서당문화이다. 조선시대 후기와 일제강점기 격동의 시기를 살아간 인간 김훈장과 사표(師表)로서의 김훈장의 의미를 새길 수 있는 곳이 김훈장 집이다. 비록 “서당도 되고 사랑도 되는 대청 하나가 따른 두 칸 방”<sup>27)</sup>뿐이어서 집은 보잘것없다. 하지만 자존심 강한 향반 김훈장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공간이고, 김훈장과 조준구의 조선 후기 시국에 관한 논쟁이 벌어지는 장소이므로 이들 내용을 안내하여 체험자들이 의미있게 장소체험을 할 수 있게 유도한다.

김훈장이 유교적 인습을 지닌 인물이기는 하지만, 마을의 어른으로, 서희의 스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준다. 아들 삼형제가 죽은 후에 양자를 들여서라도 가문을 잇는 모습에서 그는 유교문화의 전통적 인습을 지녔다. 그러나 서희와 평사리 농민들의 사표(師表)로서 평사리 농민과 함께 의병에 가담하여 젊은 세대와 함께 용정행에 합류하는 실천력을 보여주는 인물이기도 하다. 그리고 평사리 김훈장의 집은 왜구가 마을을 짓밟고 지나가자 마을 사람들이 분개하여 울분을 토하려고 모일<sup>28)</sup> 만큼 평사리의 대표적 소통 장소이기도 하다. 사표(師表)의 의미조차 무색한 시대에 김훈장이 보여주는 행보는 수구와 진보 사이에서 갈등하지만 결국은 실천하는 어른의 모습이다. 그러므로 김훈장의 집을 적극적

27) 박경리, 『토지』 1권, 마로니에북스, 2012, 270쪽.

28) 박경리, 『토지』 3권, 마로니에북스, 2012, 338쪽.

으로 콘텐츠화하여 방문자들에게 세대와 세대를 잇는 소통의 공간으로 기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농촌의 여성문화 공간 기획이다. 두만네 집은 마을의 아낙들이 모여 품앗이를 하는 노동 공간이자 마을의 소식을 전하고 논하는 사랑방 역할을 하는 장소이다. 당대 농촌 여성들의 삶을 읽을 수 있으므로 길쌈하는 모습이나 의복 등을 재현하여 노동문화와 여성문화를 체험하는 콘텐츠로 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두만네는 또한 살인 죄인인 김평산의 아들 한복이가 마을에서 쫓겨난 후 어머니가 그리워 평사리로 숨어들어 올 때, 그를 모정으로 따뜻하게 품어주는 포용력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두만네 집은 여성의 소통 공간으로, 포용성을 나타내는 체험 공간으로 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세 번째는 월선의 집을 중심으로 무속문화를 체험하는 곳으로 구성하는 안이다. 종교나 민속학적 관점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내재해 있는 무속에 관한 의미망을 중심으로 콘텐츠를 기획하는 것이 가능하다. 무속은 오랫동안 내려오는 고유의 문화이자 의례로, 무당이나 박수에게는 종교적 제의의 공간이지만 서민들에게는 기원과 소망의 공간이다. 『토지』에서 월선의 집도 소망과 기원의 공간으로 봐야 한다. 신분의 차이로 용이와 혼인하지 못한 월선이가 어머니 월선네의 무녀 신분을 원망하면서 용이와의 사랑을 소망하는 장소가 바로 월선의 집이다. 임진영은 『토지』에 그려진 평사리의 장소성을 ‘상호연대와 도리를 중심으로 하는 최참판택 중심의 질서와 서민들의 정신을 중심으로 하는 ‘자연종교, 무속의 세계’<sup>29)</sup> 두 가지로 내세운다. 무속(巫俗)은 인물들의 운명의 향로를 바뀌므로 ‘우리의 전통 의식에 녹아있는 문화 스펙트럼으로서의 무

29) 임진영, 『인간주의 지리학 관점에서의 장소성 프로세스를 적용한 문화지리학 연구: 소설 『토지』 속 평사리를 중심으로』, 『지리교육논집』 55, 2011, 14쪽.

속문화를 체험하는 콘텐츠를 기획하여 월선의 집을 무속과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는 소망의 공간으로 기획하는 것이 가능하다. 몇몇 장면을 구상하면 다음의 예가 있다.

1	자존의 길 - 유교문화를 대표하는 김훈장의 집
소설	<p>딸자식은 '비리오른 강아지만큼으로 치부했으며 일구월심 어디서 양자를 데려오느냐, 누구에게 선영을 맡길 것이냐, 나머지 인생은 그 일을 위해 있는 것 같았고 오직 그것에만 그의 마음이 쏠려 있는 듯 보였다.</p> <p>“이대로 문을 닫는다면 무슨 낮으로 조상을 대하겠는고.”(박경리, 『토지』 1권, 마로니에북스, 2012, 177쪽.)</p>
드라마	<div data-bbox="687 958 986 1155" data-label="Image"> </div> <p>양자 문제를 걱정하는 김훈장에게 윤보는 한복을 거론한다. 그러나 김훈장은 더러운 살인자의 핏줄이라며 일언지하에 거절한다. (SBS 드라마 &lt;토지&gt; 11화 00:44:01-00:52:38)</p>
2	소통의 길 - 마을 아낙들의 소통 공간인 두만네 집
소설	<p>강청택은 두만네가 말아다주는 국수를 훌훌 소리내며 먹는데 을씨년스럽게 보인다.</p> <p>“성님은 베틀 맏지…”</p> <p>말을 하다 말고 두만네는 아쁠사 했다. 막딸네한테 물어본다는 것이 아옹다옹하는 바람에 실수다. 함안택은 어리둥절해서</p> <p>“베틀이야 일 년 열두 달 매는 거구, 우리 거라면 아직 미영(목화)씨도 앓아두지 않았네.”</p> <p>“그, 그럴기요. 미영은 많이 거뒀소?”</p> <p>“실잖어.”</p> <p>“참말이지 동지 선달 삼베 잠뱅이 입었음 입었지 그놈의 쇠기(목화씨를 빼는 연장) 소리 듣기 싫지.”</p> <p>가슴 밑을 쓸고 있던 아무네가 화제에 끼어들었다.</p> <p>“누가 아니래?”</p> <p>임이네가 맞장구를 쳤다.(박경리, 『토지』 1권, 마로니에북스, 2012, 110쪽.)</p>

<p>드라마</p>	 <p>(SBS 드라마 &lt;토지&gt; 4화 00:37:19-00:39:05)</p>
<p>3</p>	<p>소망의 길 - 소망의 공간으로 기능하는 월선의 집</p>
<p>소설</p>	<p>근동에 많은 무격들 중에서 월선네는 참다운 주술사였으며 대부분이 큰 곳을 관장할 수 없는 선무당들 속에서 흔치 않은 숙무(熟巫)였었다. 그럼에도 그는 노상 가난하여 의식이 어려울 때가 있었으나 제물만 차려주면 어느 곳이든 고향하기를 사양치 않았고 남이 업신여기는 무당의 신분을 그 자신을 위해 한탄하는 일이 없었다. 다만 그는 딸 월선이를 위해 미안하게 측은하게 여겼던 것뿐이었다.(박경리, 『토지』 2권, 마로니에북스, 2012, 227쪽.)</p>
<p>드라마</p>	 <p>윤보와 월선이 월선네 무덤에서 이야기하는 장면. 윤보는 “무당 딸이라는 근본을 벗고 여보란 듯이 살라”는, 월선네의 유언을 월선에게 알려준다.</p>  <p>(SBS 드라마 &lt;토지&gt; 4화 00:33:26-00:34:50)</p>

한편, 이들 공간을 하나의 산책 경로로 구성하여 경로를 따라 이동하게 하고, 각 지점들을 안내하여 방문자마다의 경로를 만들어서 방문자의 체험 동선을 설계하게 한다. 미국의 ‘보스턴 프리덤 트레일(Freedom

Trail)<sup>30)</sup>과 슬로우 시티의 의미를 결합하여 자존길, 소통길, 소망길 등의 의미를 내포한 일명 ‘토지 생명길’의 형태로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다. 방문객은 이 콘텐츠를 체험하면서 단순히 등장인물과 사건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토지』에 나타나 있는 인간 군상의 욕망과 삶의 지향을 되새김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평사리가 기술적 의미로서의 공간 구성에 집중했다면, 이후에는 체험형 문화콘텐츠로 변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단순히 드라마 등의 ‘엔터테인먼트계의 정보재’로서의 평사리가 아니라 ‘수용자들의 의식과 경험’<sup>31)</sup>을 풍요하게 할 콘텐츠 요소를 마련해야 한다. 『토지』의 평사리가 대표하는 우리 문화와 수용자들의 체험을 매개하는 내적<sup>32)</sup> 기획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그런데 기존의 전시 형태의 체험은 일회성으로 끝날 한계가 있다. 그래서 디지털 콘텐츠로 만들어진 원작이나 드라마의 내용을 되새김하고 조선시대 후기의 농촌 문화를 체험하는 공간으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술적으로는 단순 전시나 팸플릿 제공 등의 형태에서 벗어나서 평사리가 대표하는 우리 문화의 기억 저장소의 형태로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한다. 이 과정에서 역사적 사실에 관한 일차적 정보제공이나 어설픈 현실 역사와의 동일시에서 출발하는 관점은 배제되어야 한다. 공간 재편

30) 미국 보스턴 시에서는 역사 유적 탐방 산책 경로를 제시하여 방문자들을 안내한다.

31) 일본에서는 콘텐츠를 ‘대중들의 선택과 소비’에 방점을 두고 ‘즐거움’의 가치를 창조하는가가 기준이 된다. 수용자를 위한 콘텐츠 기획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현철, 『한국과 일본의 콘텐츠 개념에 대한 비교 연구』, 『한국학 연구』 45, 2013, 241-245쪽 참조.

32) 콘텐츠의 기술적(형식적) 관점만 강조하면, 문화콘텐츠의 미래는 내용보다는 형식적 부분의 외형만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이는 창의성을 기반으로 한 미래 문화산업의 방향성과도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 류준호·윤승금, 『문화산업의 용어적 정의가 문화콘텐츠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5권 1호, 한국벤처창업학회, 2010, 13쪽.

의 축을 역사 정보재로서가 아니라 정신사적 측면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수용자의 체험을 유도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역사정보재화하는 것만으로는 『토지』의 의미와도 방문자의 장소성 확보와도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콘텐츠 체험 유형은 전시관에 게시하는 유형이 있다. 안내 게시판에 QR코드 등을 통해서 그 공간의 의미를 확인하는 웹게시물로 이동하게 하고 그 웹게시물 내에 원작 토지의 대사나 지문 등을 안내한다. 텍스트 원작뿐만 아니라 드라마 장면 등을 짧은 분량으로 올려서 관련된 영상을 유튜브 등에 게시하는 형태도 가능하다. 또한 국립공원 스마트 탐방 앱 형태를 제작하는 것도 가능하다. ‘스마트탐방 PARK’라는 이름의 이 앱은 증강현실 기능을 이용해 원하는 곳에 앱을 활성화하면 안내가 나오는 형태이다. 현장에서 장소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기에 학습적인 면이나 장소 체험의 면에서 실감을 높이는 방안이다. 텍스트, 만화 장면, 드라마 장면등을 AR로 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 5. 콘텐츠 플랫폼 평사리

지금까지 원작 소설 『토지』의 콘텐츠 분화 양상을 평사리 공간의 의미와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평사리는 원작 『토지』의 공간에서 드라마 〈토지〉의 촬영 공간으로, 그리고 하동군의 ‘브랜드<sup>33)</sup> 평사리’로

33) 도시공간의 정체성 진단 모형은 생태역사문화자원의 브랜드 인지도를 브랜드 원형 단계, 브랜드 혼돈 단계, 브랜드 지표 단계, 브랜드 상징 단계, 브랜드 아이콘 단계로 나누어 분리하는데, 평사리의 현재 상태는 원형 단계로 볼 수 있다. 백승국·강정지, 『지역문화콘텐츠와 공간기호학적 방법론 연구』, 『프랑스문화연구』 제16집, 2008, 63-65쪽 참조.

변화해 왔다. 하지만, 외형적 공간 기획에 머물러 수용자들의 체험 공간으로서의 기획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러므로 『토지』에 그려진 우리의 문화와 삶을 체험하는 콘텐츠를 제공하여 박제화된 공간을 ‘생명공간’으로 만들어 방문자가 저마다의 장소성을 체험하는 공간으로 재구성해내야 한다. 장소와 문화정보의 결합, 장소와 체험의 결합, 장소와 의미의 결합의 관점에서 콘텐츠 기획이 이뤄져야 한다. 현재의 박경리 문학관과 최참판댁의 외형적 공간 제공을 통한 지역이나 여행 산업적 관점의 방식이 아니라 장소성 체험의 내용 기획을 통해 하동군의 문화플랫폼으로서 ‘평사리’의 ‘인문적 가치를 우위에 두어 문화콘텐츠화<sup>34)</sup>해야 한다. 즉, 다각도로 기획하여 ‘공간브랜드 평사리’를 ‘문화콘텐츠 플랫폼 평사리’로 진화시켜낼 필요가 있다.

이 글은 텍스트의 상상 공간이 어떻게 현실 공간을 변화하게 했는지를 소설 원작, 매체 변용작품, 그리고 실제 공간인 평사리의 실례를 통해 보여주고 문화콘텐츠 플랫폼 평사리로의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제안하는 것에 그 의미가 있다. 또한, 이후 방문자의 체험형 문화콘텐츠 개발뿐 아니라 다른 문학작품의 콘텐츠화와 지역문화산업 지형 구축에도 시사점을 준다.

34) 문화콘텐츠는 인문적 가치를 우위에 두어 “인간 삶의 질적 가치의 제고를 위하여 문화적 전통과 현상을 특정한 매개체를 통하여 현대화(동시대화)하는 일련의 행위”이다. 임대근, 『문화콘텐츠 개념 재론再論』, 『글로벌컬처의문화연구』 4, 2014, 19쪽.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박경리, 『토지』, 마로니에북스, 2012.

### 2. 논문과 단행본

김현철, 「한국과 일본의 콘텐츠 개념에 대한 비교 연구」, 『한국학연구』 45, 2013, 213-245쪽.

류준호·윤승금, 「문화산업의 용어적 정의가 문화콘텐츠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5권 1호, 한국벤처창업학회, 2010, 1-18쪽.

박상민, 「『토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문화예술산업」, 『현대문학의 연구』 21호, 한국문학연구학회, 2003, 393-436쪽.

백승국·강정지, 「지역문화콘텐츠와 공간기호학적 방법론 연구」, 『프랑스문화연구』 제16집, 프랑스문화예술학회, 2008, 53-77쪽.

에드워드 렐프, 『장소와 장소상실』, 김덕현·김현주·심승희 옮김, 논형, 2017.

이상진, 「『토지』의 평사리 지역 형상화와 서사적 의미」, 『배달말』 37호, 배달말학회, 2005, 262-286쪽.

이승윤, 「문학관/문학공간의 활성화 방안과 콘텐츠 기획의 사례 연구-박경리의 『토지』를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24/4, 2018, 9-34쪽.

이정훈, 「장소의 상징적 이미지와 문화적 활동의 영역적 체계에 입각한 문화관광개발의 개념적 모형 정립」, 『한국지역지리학회』 11/5, 2005, 405-425쪽.

임대근, 「문화콘텐츠 개념 재론再論」, 『글로벌컬처의문화연구』 4, 2014, 10-21쪽.

임진영, 「인간주의 지리학 관점에서의 장소성 프로세스를 적용한 문학지리학 연구-소설 『토지』 속 평사리를 중심으로」, 『지리교육논집』 55, 2011, 1-16쪽.

조운아, 「박경리 『토지』의 공간 연구」, 『현대문학의 연구』 21호, 한국문학연구학회, 2003, 287-326쪽.

### 3. 기타자료

〈故박경리 선생 ‘한다사 대상’ 첫 수상 영예〉, 『일요서울』, 2017.4.15.,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1510>)

〈다시 봄비는 문예영화〉, 『경향신문』, 1975.4.14., 5면.

〈대하드라마 토지 막내려〉, 『동아일보』, 1989.8.7., 16면.

〈지역 名士와 함께 하는 문화 여행지 경남 하동·남해〉, 『파이낸셜뉴스』, 2017.12.



14., 30면.

〈촬영지 여행-그곳에 가면 '홍길동'을 만날 수 있다〉, 『경기도민일보』, 2017.2.10.,  
(<http://www.kgdm.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5282#08p2>)

〈토지 작가 박경리의 소설보다 더 소설 같은 삶〉, 『여성동아』 493호, 2005,  
(<http://woman.donga.com/3/all/12/132543/1>)

〈하동 어딜 가든 대하소설이 펼쳐진다〉, 『조선일보』, 2016.7.4., 14면.

〈하동 최참판댁, 역사 드라마 단골 촬영지로 '인기몰이'〉, 『연합뉴스』, 2017.3.8.,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9092083>)

〈KBS 박경리 소설 『토지』 TV극화〉, 『동아일보』, 1979.8.24., 5면.

## Abstract

A Study on the Cultural Industrialization and Content Change Direction of Pyeongsari, a Novel 'Toji (*Land*)' Background Space

Choi, You-Hee(Chung-Ang University)

This paper examines the meaning of Pyeongsari, the main stage of the novel 'Toji (*Land*)' and the original experience space engraved in the lives of the characters and suggests the direction of Pyeongsari as a 'Toji (*Land*)' content platform.

Pyeongsa-ri, an imaginary space in the novel, starts from the background of the original work and turns into a representative tourist space for Ha Dong-gun. However, it is necessary to provide cultural experience-type contents that visitors can experience in person. In the original work, Pyeongsari is an ideal community and a symbol of the Korean modern history of suffering and pioneering. Therefore, taking advantage of this meaning,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cultural experience space that shows Confucian culture, women's labor culture, and shamanic culture to draw on visitors' experiences.

In addition, the app should be developed in connection with transformed works that have been the driving force behind the reorganization of Pyeongsari, and education and experience spaces using augmented reality are provided on the web. This interaction between digital and reality makes the meaning of the original or transformed works contemporaneous, while contributing to the visitor's own experience. In addition, through this, Pyeongsari can evolve into a cultural experience content platform that reflects the meaning of Korean culture and life.

This paper is significant in that it suggests the direction of Pyeongsari's space planning for the 'geography of meaningful places'. In addition, while showing how the imaginary space of the original literary work has reorganized the space of reality, there are implications for the media content of the literary work and the terrain of the culture and arts industry.

소설 『토지』 배경지 평사리의 문화산업화와 콘텐츠 변화 방향 연구 / 최윤희 247

(Keywords: Pak Kyong-ni, Novel *Toji*(Land), Pyeongsa-ri, Life Space, Placeness, Cultural Experience Content, Culture and art industry)

논문투고일 : 2020년 4월 18일

논문심사일 : 2020년 5월 5일

수정완료일 : 2020년 5월 12일

게재확정일 : 2020년 5월 13일